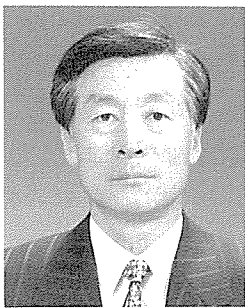


창립 45돌 ... 전국에 회원 2천여명

# 한국체육학회

1953년 창립된 한국체육학회는 83년 사단법인으로 인가되어

그동안 국내외 학술대회 및 세미나를 여는 등 활발한 학회활동을 해오고 있다. 전국 체육대학 교수와 대학원생, 그리고 일반 초·중·고 체육교사와 체육지도자 등 2천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올해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한·일 공동개최 특별 심포지엄을 열게된다.



林 繁 藏

(한국체육학회 회장/서울대 체육학과 교수)

오늘날 체육은 과학화, 평생화, 세계화, 상업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현대사회를 대표하는 특징적 문화양식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현대사회의 대중문화 및 대중여가 활동에서 주도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체육의 대중화 현상은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사회에 있어서 풍요롭고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위한 대중의 욕구가 한층 증대되고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실천영역으로서 체육의 가치 및 역할은 더욱 중요시 될 것이며, 또한 컴퓨터,

유전공학, 환경공학 등으로 특징되는 고기술(하이테크) 문화가 사회전반에 걸쳐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그에 비례하여 예술, 체육, 관광,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등과 같은 고감성 하이테크 부문에 대한 요구와 수요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본 학회는 이와 같은 새로운 환경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이러한 변화를 아무런 준비없이 맞이할 경우 체육이 한차원 높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예견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체육을 미래사회에서 중심적이면서도 필요불가결한 사회부문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

## '88올림픽경기 활동 활성화

〈연 혁〉 학회가 창립된 이래 어느덧 4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여러 선생님들의 해안과 열정으로 1953년에 창립된 한국체육학회는 1983년에 사단법인으로 인가되어 그 간 대내·

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구가하여 명실공히 우리나라 체육의 이론적·실천적 구심체로 굳건히 자리잡게 되었다.

학회는 그동안 국내·외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학회지 및 학회보 발간, 국제교류 등의 활동을 통해 국민생활 체육 진흥의 방향을 제시하고, 엘리트스포츠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체육학의 학문성 고양과 세계화를 이룩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특히 86 아시아경기대회와 88 서울올림픽경기대회에 즈음하여 본 학회가 개최한 국제학술대회는 체육학의 학문적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공인받게 된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후에 더욱 가속화된 체육학의 과학화 및 전문화 운동의 초석이 되었다.

〈조직 및 회원〉 현재 학회조직은 1인의 학회장 아래, 5인의 부회장이 있으며 총무이사 1, 이사 8, 감사 2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체육사학(sport history), 체육철학(sport philosophy), 스포츠사회학(sport sociology), 사회체육(sport & leisure studies), 여가·레크리에이션(leisure & recreation), 스포츠심리학(sport psychology), 스포츠교육학(sport pedagogy), 체육행정·경영(sport administration & management), 스포츠생리학(sport physiology), 운동역학(sport biomechanics), 특수체육(special physical education), 체육측정평가(measurement & evaluation in physical education), 무용(dance) 등 13개의 하위 분과를 두고 있다.

학회 회원은 크게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분류되며 약 2천여명에 이른다. 회원은 대개 체육관련학과 교

수 및 대학원생, 일반 초·중·고 체육 교사 그리고 기타 체육 지도자 등으로 구성되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 회원 2천여명 매년 세미나

〈예 산〉 한국체육계에서 체육학회가 차지하는 중요성이나 학회의 사업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재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학회 운영 예산의 세입은 주로 국고보조금과 회원의 연회비 등에 한정되어 있고, 수익사업을 통한 자체 수익조달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광고비와 찬조금이 어느 정도 확보되기는 하지만 그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 학회의 재정적 취약성은 학회활동의 활성화를 제약하는 일차적 요인이기 때문에 그 극복방안의 적극적인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학회는 회원수의 확대 작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예산 수익원의 다양화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학술활동〉 세미나는 연례 행사로써 체육 주간을 기념하는 '국민체육진흥 세미나', 88년 서울올림픽을 기념하는 '서울국제스포츠과학 학술대회', 전국체육대회 식전 행사인 '한국체육학회 학술발표회'와 올해 신설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한·일 공동 개최 특별 심포지엄' 등이 있다.

국민체육진흥세미나는 체육학의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엘리트스포츠와 생활체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체력 증진을 위한 유아·청소년·여성·성인·노인 등 각 생활체육 대상별 활동방향을 제시하여 왔다. 반면에 국제학술대회 등은 국내외 저명학자를 초청하여 스포츠과학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스포츠계 최신 정보

를 입수 및 교류를 통해 구체적인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회원들의 연구활동을 고양시켜 왔다. 또한 올해 처음 개최될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한·일 공동개최 특별 심포지엄은 저명한 일본학자들을 초청하여 한·일 공동개최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이론적 토대 위에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부가하여 엘리트스포츠와 생활체육의 균형적 발전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학회지·회보 연간 4회발간

〈발간사업〉 학회의 학문적 성숙도는 그 학회지 및 학회보와 세미나의 양질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본 학회지 및 학회보는 연 4회 간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학회지는 원고게재여부가 '학회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이 위원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분과 영역별 편집위원을 두고 있다.

또한 학회보는 최신 체육학의 연구 동향, 현장에 필요한 체육교수법 그리고 각종 세미나 소식 및 회원동정 등에 관한 시사성있는 정보를 다루고 있다. 96년 6월(제 65호)부터는 전국 대학 체육학과 교수 50여명을 편집위원으로 선정·구성하여 내용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체육국제교류〉 국제협력 활동은 매년 여러 선진국들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에 본 학회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한·중 체육과학 학술교류는 정치, 경제 교류와 더불어 체육외교를 통한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정립하고, 양국간의 학술교류를 통하여 21세기 체육학 발전에 양국이 공동



노력하며 전문 분야별 세미나를 개최하여 사회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 체육의 최신 정보를 상호 교환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독일 체육학회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한·독 체육과학 학술교류는 엘리트스포츠의 경쟁력 확보 및 사회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체육 관련 정보를 입수하여 21세기의 한국체육 연구 방향을 모색하였으며 독일 체육학회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활동을 강화하였다.

〈과 제〉 현재 학회는 정보화사회에서의 방대한 체육관련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자료의 전산화(CD Rom)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 4월에 개최되는 국민체육진흥세미나에서 데모할 예정이다. 또한 학회는 세계 어디에서나 체육학회의 정보를 용이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용해 오고 있다(인터넷 주소 : www.bora.dacom.co.kr/~kahperd). 그러나 정보자료의 전산화와 인터넷운용이 아직 초보단계에 있어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학회의 세부 운영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체육학회가 다가오는 21세기에 여타 다른 학회에 견주어 손색이 없는 학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학회의 정체성 확립, 학회의 조직 강화, 학회의 재정적 자립 확보, 현장 전문체육분야와의 연대 강화 등의 과제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㉟